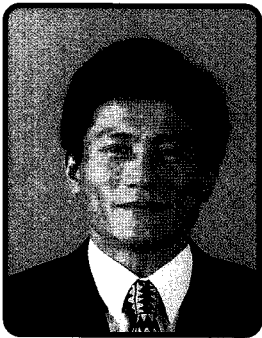


# 신선식품 포장과 환경



박형우/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유통연구단 책임연구원

우리 인간이 태초에는 오염이 안된 무공해(?) 식품을 먹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으로 삶의 형태가 자급자족에서 전업의 형태로 바뀌어 농촌, 어촌, 도시 등이 형성되고, 도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대화, 메트로화 되어가고 있다. 농어촌에서 생산된 식재료, 쌀 등의 주식과 과일 채소와 고기를 배불리 먹을 방안을 없을까! 에서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소득향상으로 어떻게 하면 신선하고 맛있으며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은 소득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라고 사료된다. 그래서 저온유통사업, 규격출하, ULS(Unite Load System 일관수송시스템)와 농약검사는 물론 국민의 정부시절 부처에 친환경농업과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여 유기농, 저농약 등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선식품을 농촌에서 소비지인 도시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필수적이며, 포장을 위한 재료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농산물용 포장재는 크게 지류와 플라스틱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인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서울시내 가정주부 1200여명에게 설문을 조사한바 있는데 가족을 위해 과일을 구입할 때 고려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부터 쓰라고 한 결과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인자가 신선도였고, 그 다음이 맛, 세번째 고려사항이 안전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포장재는 내용물 보호 기능이 중요하다. 플라스틱 포장재가 지류에 비해 다소 환경부하가 크다(?)고 해서 채소와 과일이 시들고 품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류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또 농산물은 유통중에도 호흡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 지류포장상자는 수분을 흡습함으로서 상자가 찌그러져 내용물이 손상을 입게되며 상품성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신선한 식품을 원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에게 저품질의 식품을 공급해야하는 제도가 있다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농산물상자로 잘 사용해오던 스티로폼상자는 현재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호주 시드니에도, 미국 워싱턴에도 일본 동경에도 농산물 포장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환경보호를 도외시하는 국가들인가? 식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리사이클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환경상 또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환경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락동에도 스티로폼 재활용설비가 설치되어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포도, 딸기 등의 수확시 비가 자주 내리는데 수확 성수기에는 시간을 다투어 수확해야 되는데 골판지 상자는 비에 젖어 사용이 불가하여 이로인한 생산상의 차질, 수확을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농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농민은 장마철 시작 며칠전에 수확을 해 냉장고에 저장하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덜익은(영양가적고 맛이 덜한) 과일이 공급된다는 것이다. 또 통신 판매 택배물량이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플라스틱계 포장재의 사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